'글자'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탐구

로쎄르 마쌩 지음「글자와 이미지」

이미지란 인류공통의 언어이다.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세상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인지'한다.

태고 이래 가장 보편적이면서 독특한 영역을 갖고 있는 인간커뮤니케이션의 한 요소는 그림기호 혹은 언어기호이다. 이 책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체계를 투영한 기호(글자)와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그림) 표현과의 상호관계를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에서 읽어낸다. 프랑스 타이포그래피계의 거장인 로베르 마쌩은 글자와 이미지 사이에 이뤄졌던 독창적인 탐구를 박학한 이론과 사상을 배경삼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사상의 갈래는 종교와 철학 회화 문학 음악 조각 건축 연극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10여년에 걸친 치밀한 자료조사는 1,179개의 방대한 작품사례로 이어진다.

수천년간 변형굴절된 상징적 표현방식

「글자와 이미지」의 중심테마는 알파벳이라는 기호다. 여러시대에 걸친 알파벳 디자인의 회화적 특성과 그래픽적 특성을 포착해냄으로써, 수천년 동안 변형 굴절되면서 새롭게 태어나곤 했던 인간의 상징적 표현방식을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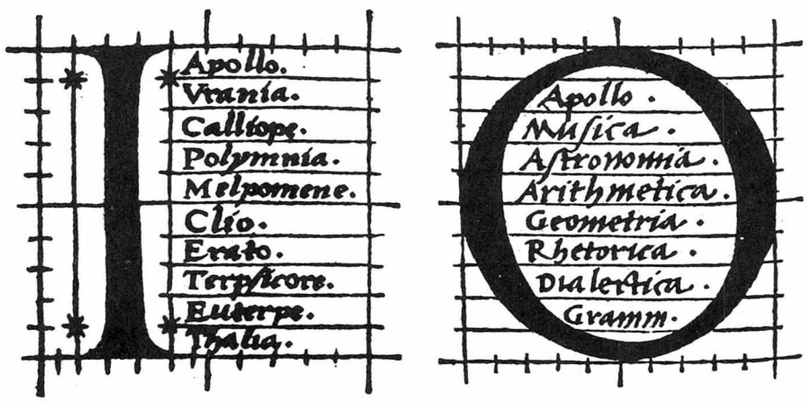
알파벳을 이루는 26자의 작은 형체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13으로 나눠지는 하나의 숫자로 다가온다. 또 26자의 알파벳으로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히 천문학적 수치이다. "가장 훌륭한 문학작품이란 알파벳을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장 꼭도의 말도 인용된다.

일단 책읽기를 멈춘뒤 문장구조를 해부하고 단어의 연결을 풀면 글자들의 신비성이 드러난다. 글자는 몇세기의 침식에도 끄덕없이 견뎌냈다. 오히려 모든 지식이 글자에서 비롯됐다. 글자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알게 되고 후손에게 유산을 남긴다. 글자로 구성된 슬로건은 학생,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에이젠시타인은 그의 영화에 수천개의 촛불로 이뤄진 '히틀러만세'라는 군중글자를 이미지화시켰으며, 발자크는「결혼생활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각 장의 첫머리에 사람모양의 머리글자를 새겨 작품이미지를 상징화했다.

400여년 전 조프로와 토리는「꽃밭」이라는 책에서 모든 라틴 알파벳의 글자를 인간의 얼굴과 몸의 비율구조로 환원함으로써 글자의 공간에 담긴 인간정신을 표현했다. 토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인간의 신체를 닮은 모양으로 분할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같거나 혹은 다른 비율로 구성된 점들과 선들의 측정값"이라고 글자체의 엄격한 과학성을 끌어냈다.

'O'이라는 완벽한 원속에 일곱가지 교양과목을 집어넣고 'I'라는 기본글자에 아홉명의 뮤즈여신을 그려넣었다. 결국 모든 알파벳이 'I, O'라는 여신의 기호밑에서 탄생된다. 태양을 뜻하는 'O'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23가지 알파벳 글자를 변화시켰는데 그것으로 곧 23개의 광선이 아홉명의 뮤즈여신과 일곱가지 자유로운 학문, 그리고 네가지 기본적인 덕과 세가지 예절을 뜻하게 만들었다. 예컨데 'A'라는 글자는 "밖으로 넓게 그 다리가 뻗쳐나간 것"이 마치 걸음을 걸을 때 다리모습과 같다.

9세기말에는 '용의 모습' 같은 동물모양으로 장식한 머릿글자가 사용되는가 하면 호화로운 식물장식에서 무성한 잎의 엉킴으로 3차원적 디자인을 예고하기도 했다. 14세기의 사실주의와 로마네스크식 전통고딕체의 구조틀 등이 각각 시대적 변천을 따라 새로운 형식의 기하학적 글자본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O'라는 완벽한 원과 'I'라는 기본글자에서 아홉명의 뮤즈여신과 일곱가지 자유로운 학문, 그리고 네가지 기본적인 덕과 세가지 예절을 뜻하는 23가지 알파벳 글자를 변환시켰다.

미학적 대상으로서의 '글자'

오늘날 글자는 하나의 '개체'이다. 단어의 '의미'를 상실한 글자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명암과의 작용과 변형의 굴절을 통해 미학적 대상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알파벳 글자체에 대한 과학적이면서 시적인 상상력이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 꽃글자 동물글자 사람글자 우주글자의 생기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풍부한 삽화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그림에서 글자로 구체화를 지향하던 인간이, 어느새 또 다시 글자에서 그림(이미지)을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기호와 글자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글자 속에 담긴 수천년 인간정신의 이미지를 새삼 일깨운다.

미진사 / A4 / 384면 / 8,000원